



姜 信 默
 (새생각회 회장)

實用的인 것을 發明하자

에디슨처럼 人間生活을 송두리째 바뀌놓을 만큼 向上시킨 人物은 없을 것이다.

電燈·電話·電信·蓄音機·映畫·打字機 등 모두 그가 發明했다.

우리들의 生活이 이렇게 便利하게 된 것은 에디슨같은 發明人들의 德澤이다.

에디슨은 平生에 1,919가지의 特許를 얻었다. 그 가장 처음 것은 1868年 投票 記錄機로부터 시작됐다. 電信記者로 있던 時節에 그는 國會의 投票가 時間을 虛費하는 것에 마음이 걸렸다.

그래서 能率을 올리는 機械

를 만들고 싶었다. 이것을 깨끗하게 完成시켜 特許까지 내어 國會에 팔려가서 뜻밖의 經驗을 했다. 國會議員들은 그 便利함에 놀랐으나 委員長의 反對로 採用되지 못했다.

“이 機械를 쓰면 少數黨의 단 하나의 武器인, 投票延長의 길이 막힘으로 多數黨의 橫暴를 도와주게 된다.”

는 것이 그 理由였다.

이 失敗에 던져버려 난 그는 發明에 대한 하나의 敎訓을 얻은 셈이다.

“이제부터는 널리 세상이 必要로 하거나, 有用하다고 認定되는 發明에만 時間과 努力을 하자”

이것이 그 뒤에 그가 大成한 秘訣이라 한다.

그 華麗한 發明의 成果는 投票記錄機가 失敗한지 3年만인 1871年에 發明한 레밍턴式 打字機로 速記가 되고 能率이 오르는 實用品인 점에서, 그의 實用的 敎訓을 이룬 것이다.

1876년에는 電話의 特許를 받았다. 그러나 豫告뿐이어서 두 달 후에 模形을 完成한 벨이 電話의 發明人으로 認定됐다. 그것에 送話裝置를 完成하여 實用할 수 있게 改良한 것은 에디슨이었다.

1877年の 어느 날 아침, 뉴욕의 科學雜誌社 編輯長 앞에 종이 보따리를 든 에디슨이 나타났다.

“그게 뭐가?”

“괜찮으니 여길 돌려 보게 나!”

“안녕하십니까? 蓄音機를 어

떻게 보십니까?”

하는 사람소리가 나지않는가? 새파랗게 질린 編輯長은 조심조심 보따리를 풀었다.

蓄音機의 소문은 삼시간에 각 新聞社에 퍼지고, 記者와 好奇心에 찬 市民들이 모여 들었다. 너무나 밀려들어 마루가 꺼질까봐 展覽說明會를 中止하고 말았다.

이것은 에디슨이 가장 사랑한 發明品인 蓄音機의 이야기다.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야말로 참다운 아이디어다. 거꾸로 입에만 붙어 있다든가, 머리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죽은 아이디어다.

아이디어는 어디까지나 實行하거나, 形態로 나타내는 것이 重要하다. 입으로 말하는 것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기는 크게 다르다.

그림이나 어떤 形態로 이루어져서 뚜렷한 아이디어가 되기까지엔 생각하고 있을 때보다 더욱 더 努力이 必要하다.

그것을 實行하고 困難을 넘어 서야 한다. 그 아이디어를 옮기는 좋은 方法을 研究해야 한다.

좋은 아이디어는 많지만 산 아이디어는 적다. 죽은 아이디어는 살려내어 세상에 도움이 되게 하자.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完成시키지 못한다면 아무 價値도 없다.

‘구술이 서말이라도 꺾어야 보배’라는 俗談처럼, 아이디어는 開發보다 實踐하는 일이 더 重要하다. (계속)